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간접효과를 중심으로[†]

문슬빈 이민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SNS를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20~30대 남녀 378명을 대상으로 SNS 중독경향성 척도,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ERQ),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를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을 통해 측정변인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고,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및 간접효과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내면화된 수치심 각각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자의 SNS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인지, 정서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SNS 중독경향성, 내현적 자기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내면화된 수치심

[†] 이 논문은 문슬빈(2017)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민규, (660-701)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Tel: 055-772-1264, E-mail: rmk92@chol.com

2009년 80만 명에 불과했던 한국의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2016년 4,574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이 사용 가능해지면서 사회적 상호작용 매체인 SNS(Social Network Services)도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었다. SNS란 온라인상에서 사회관계를 형성하여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다양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개설된 1인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말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SNS의 종류와 형태는 사용자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데, 여기에는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프로필 페이지를 기반으로 인맥을 형성하고 교류하는 프로필 기반 서비스,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게시물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블로그, 140-150자 이내의 단문 메시지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마이크로 블로그 등이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SNS를 통해 폭넓은 대인관계 상호작용과 인맥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졌으나 SNS 중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도 나타났다. 이미 ‘SNS 피로증후군’, ‘페이스북, 트위터 중독 장애(Facebook, Twitter Addiction Disorder: FTAD)’와 같은 신조어가 생겨났으며, SNS를 위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을 유발하기도 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또한, 하루라도 SNS를 하지 않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껴 관계에 집착하게 만들고, 다른 중독들처럼 금단이나 내성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SNS 중독에 관한 연구 및 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SNS 중독은 인터넷 중독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을 기반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김정화, 2015). 그러나 인터넷은 친교 형성 뿐만 아니라 쇼핑과 게임, 도박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되어 있어 다양한 중독 증상을 보이는 반면, SNS는 주사용 목적이 친교 형성 및 유지이므로 관계중독이라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오윤경, 2012). Young(1999)은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관계 중독을 구분하였고, 이상호(2013)는 SNS 중독을 사이버 중독의 일종이나 ‘관계집착형’ 중독으로 정의하였다. 이로 인해 선행연구들에서는 SNS 중독을 인터넷 중독과 구분지어 연구하고 있는데, 다수의 연구에서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의 성격 요인인 내현적 자기애에 주목하였다. 조성현과 서경현(2013)의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영은, 박현주, 허창구(2016)의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문제가 매개하였다. 또한, 정구철과 문종호(2015)의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이 매개하였으며, 이은지(2015)의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애는 그 발현양상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되는데(Wink, 1991),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언급하는 웅대하고 과장된 자기지각 및 과시하려는 태도가 특징인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특권 의식을 보이고 지배욕이 외부로 표출되며, 타인에게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고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보임으로써 자기애적 욕구를 충족시킨다(김선미, 서경현, 2015). 반면, 내현

적 자기에는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쉽게 상처받는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며,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므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한다(한수정, 2016). 그러면서도 자기에 대한 과시적이고 웅대한 환상이 무의식적으로 숨겨져 있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중심이 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지니고 있다(강선희, 정남운, 2002). 그러므로 내현적 자기에자는 타인의 반응이나 평가에 매우 민감하여 창피를 당할 위험이 있는 사회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동시에 인정에 대한 욕구가 내면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한수정, 2016), 현실에서는 인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조성현, 서경현, 2013). 이러한 내현적 자기에의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SNS는 이들 내면에 존재하는 자기에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선, SNS는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모습만 연출하여 보여줄 수 있어, 내현적 자기에자들이 현실에서 표출하지 못한 웅장한 자기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도록 하여 자존감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조성현, 서경현, 2013). 또한, SNS는 면대 면으로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와 관계를 맺더라도 이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을 감소시켜 주며(이경민, 2014),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상만을 선택하여 소통할 수 있다. 더불어, 인터넷의 사용은 실패와 좌절로 인한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나 상황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적 강화를 제공하며(류수정, 2014), 스마트폰의 발달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타인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우공선, 강재원, 2011), 이러한 보상

적 경험이 강화됨으로써 SNS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조성현, 서경현, 2013). 이 같은 이유들을 미루어볼 때, 내현적 자기에가 SNS 중독에 더욱 취약함을 예상해볼 수 있다.

한편, 내현적 자기에자들은 우울, 불안,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이로 인한 주관적 불편감을 자주 경험하는데(강문선, 이영순, 2011; 강선희, 정남운, 2002; 이승현, 2011; Hendin & Cheek, 1997), 이는 이들이 사용하는 부정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관련이 있다. 권석만과 한수정(2000)은 Beck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에성 성격장애자의 인지 도식을 정리하였는데, 이들의 신념은 비현실적으로 왜곡되어 있으며 개인화, 과극적 해석 및 이분법적 사고 등의 인지적 오류를 자주 범한다고 하였다. 즉, 내현적 자기에자는 부정적인 자기평가, 취약한 자기개념으로 인한 불안정한 귀인양식과 인지적 오류 및 비합리적 신념을 갖는 인지적 왜곡 경향을 지니므로 정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대처에서도 부정적 측면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권석만, 한수정, 2000; 박세란, 2004; 신현민, 2009; 이승현, 2011에서 재인용). 결과적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부정적 인지적 대처로 인한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 병리를 유발하게 된다(이서정, 현명호, 2008).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내현적 자기에자들은 특히 수치심(shame)을 자주 경험한다고 밝혀졌는데(강문선, 이영순, 2011), 이는 인정받고 싶은 자기에적 욕구의 좌절 시 유발되는 정서 경험이다(오하연, 박경, 2012). 또한, 수치심은 자기에적 좌절에 취약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자기에자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자주, 더 강렬하게 그리

고 더 길게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Morrison, 1983). 이렇듯 수치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개인의 내면에 성격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Goss, Gilbert, & Allan, 1994), Cook(2001)은 이를 내면화된 수치심이라고 하였다. 수치심이 개인에게 내면화되면 수치심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만성적으로 부적절감, 무능력감, 열등감 등을 느끼게 된다(Leeming & Boyle, 2004). 즉, 일반적인 수치심이 '상태(state)'의 개념이라면 내면화된 수치심은 '특질(trait)'의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감정을 수치심에 묶이게 하고(shame-bound), 다른 감정을 느껴야 할 상황에서도 감정을 수치심으로 귀결시키므로 개인에게 있어 매우 괴로운 정서라고 할 수 있다(Bradshaw, 2005; 이인숙, 최해립, 2005에서 재인용). 또한, 수치심은 우울, 불안, 분노, 적개심, 비난, 자살 등의 다양한 성격 구성개념이나 정신 병리 지표와 관련성이 입증된 바 있다(이인숙, 최해립, 2005). 중독 또한 이론적으로는 수치심과 깊은 관련이 있고(Cook, 1991; Potter-Efron, 1989), 자기애자는 정서조절에 결함이 있으며 수치스러운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Schore, 1994), 수치심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중독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Baker, Piper, McCarthy, Majeskie, & Fiore, 2004). 하지만 수치심과 중독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적으므로 두 변인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과거에는 '중독'이라는 단어가 물질중독(substance addiction)을 설명하는 데 국한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개념이 확장되어 행위중독(behavioral addiction)에도 적용되고 있다(김교헌,

2007).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은 욕구충족 과정에서 걸어나는 현저한 대상을 중심으로 나눈 것일 뿐, 공통된 뇌 회로가 관여하고 유사한 일련의 단계를 거치며, 내성(tolerance)과 금단증상(withdrawal symptom)이 발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유사하다(Hollander & Allen, 2006; 김교헌, 2007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중독은 TV, 비디오게임,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과 같은 디지털 매체와 관련해서도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금창민, 2013), 같은 맥락에서 SNS 중독도 행위중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중독은 흔히 고통을 완화해주던 보상적 경험에서 출발하는데(김교헌, 2007), 이는 스트레스 사건이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회피와 관련된다(김선미, 서경현, 2015; 류수정, 2014).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나는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고, 거절당해서도 안 되며, 못 하는 것이 있거나 밋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부적절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무언가를 못 하거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이에 자신에게 위협을 주는 부정적인 장면에 대한 직면을 회피하여 보호하려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중독에 더욱 취약할 소지가 있다. 또한, Kohut(1977)은 중독을 '자기애적 행동 장애'의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로 보면서, 이를 자기애적 결손을 행동으로 채우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중독자는 중독된 대상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중대한 결함 자체를 채워줄 것 같아서 특정 대상을 갈망하게 되고, 이러한 갈망은 반복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Levin, 1987). 정리해보면, SNS의 사용은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쉽게 경험하게 되는 고통에 대한 도피적

로 작용함과 동시에 자기에적 욕구충족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자가 SNS 중독경향성을 보이게 되는 심리내적 기제를 밝혀 치료 변인을 탐색하고, SNS 중독의 구체적인 상담 및 치료개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NS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20~3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10대와 마찬가지로, 20~30대도 높은 SNS 사용률을 보이거나(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성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렇다 할 외부의 제재 없이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SNS 중독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격장애가 성인기

초기에 주로 발현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정적 영향을 미쳐 SNS 중독경향성에 정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가 내면화된 수치심에 정적 영향을 미쳐 SNS 중독경향성에 정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정적 영향을 미쳐 내면화된 수치심에 정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내현적 자기애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내면화된 수치심에 순차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쳐 SNS 중독경향성에 정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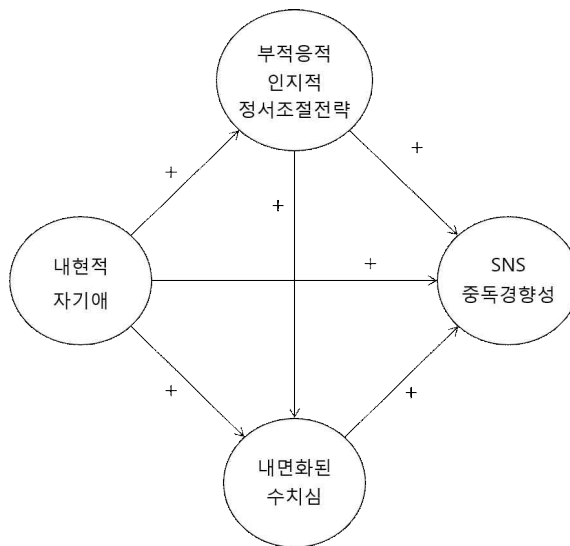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SNS를 이용하는 전국의 20~30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를 위해 온라인 리서치회사에 설문을 의뢰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데이터를 제외한 총 378명의 자료가 수집되어, 이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189명(50%)으로 동일하였고, 평균연령은 28.66세($SD=5.42$)로, 20대가 212명(56.1%), 30대가 166명(43.9%)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경상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GIRB-A16-Y-0027)을 받았으며, 설문 구성작업 및 설문조사실시는 2016년 9월에 진행되었다.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조사에서는 응답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설문 앞단에 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문을 첨부하여 이를 읽고 응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응답자의 연구 참여 동의를 확보하였다.

측정도구

SNS 중독경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경향성을 SNS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금단과 내성을 경험하게 되고 개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SNS 중독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오

윤경(2012)이 개발한 SNS 중독경향성 척도에 조성현과 서경현(2013)이 SNS 일반사용자와 과다사용자 10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ocused group interview)을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완하여 만든 것이다. 전체 20문항이며 하위요인은 ‘SNS 집착 및 금단증상(10문항)’, ‘SNS 과잉소통과 몰입(7문항)’,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 투자(3문항)’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로 평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조성현과 서경현(2013)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α 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α 는 SNS 집착 및 금단증상 .89, SNS 과잉소통과 몰입 .83,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 투자 .77이었다.

내현적 자기에 척도.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의 특징을 인정욕구, 거대자기환상 등 외현적 자기에자도 보이는 공통 특성과 과민함, 취약성, 사회적 상황 회피 등 내현적 자기에에서만 보이는 고유 특성을 모두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기초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한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 전체 45문항으로, 이는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취취/자기중심성’으로 구성된 공통요인과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으로 구성된 고유요인으로 나뉘며 5점 척도로 평정하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이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α 는 인정욕구/거대 자기환상 .90, 착취/자기중심성 .67, 목표불안정 .70, 과민/취약성 .79, 소심/자신감부족 .71로 나타났는데, Vaske(2008)는 Cronbach's α 가 0.65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 본 연구는 인지적 정서조절을 Garnefski, Kraaij와 Spinhoven(2001)이 내린 정의에 따라 정서조절을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개념으로 한정 지어 정서적으로 각성된 정보를 인지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Garnefski 등(2001)이 개발하고 김소희(2004)가 변안한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사용하였다. 이는 불쾌함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일을 경험할 때 사용하는 인지적 대처방략을 측정하는 도구로, 크게 적응적/부적응적 전략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자의 역기능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과 이로 인한 결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측정하는 1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김소희(2004)의 연구에서 하위요인들의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α 는 자기비난 .76, 타인비난 .83, 반추 .68, 파국화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α 는 .92였으며 각 하위요인별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α 는 자기비난 .82, 타인비난 .83, 반추 .78, 파국화 .83으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

된 수치심을 Cook(2001)이 내린 정의에 따라 자아정체감으로 내면화되어 열등감, 부적절감, 부족감을 깊이 느끼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수치심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Cook(2001)의 수치심 척도 원문을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변안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사용하였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6개의 자아존중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수치심 점수의 합계에서는 24문항만을 사용하며, 단일 요인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원척도와는 달리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부적절감', '공허감', '자기처벌', '실수불안'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α 는 부적절감 .87, 공허감 .90, 자기처벌 .78, 실수불안 .68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Statistics 21.0을 사용하여 자료점검과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및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고, Amos 21.0을 사용하여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 검증, 간접효과 검증을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α 로 평가하였고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의 침도 및 왜도를 검토하여 자료의 정상성 검증을 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사용하

여 각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적으로 알아보았다. 모수 추정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모형검증은 측정모형을 추정한 후에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2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배병렬, 2011). 또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사용한 모형검증 시, 수집된 자료에서 한 가지 이상의 모형이 적합할 수 있으므로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비교하는 전략이 필요하며(Breckler, 1990), 매개분석에서 연구모형을 부분매개 모형으로 설정할 경우, 경쟁모형은 완전매개 모형으로 하여 두 모형을 비교한 후 보다 적합한 모형을 선택해야 하므로(박선미, 박병기, 2014),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두 모형을 비교하였다. 전체간접효과 및 특정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식과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사용하였다.

결 과

각 변인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참여자들의 내현적 자기에, 부정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 내면화된 수치심 그리고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01 이하에서 모든 변인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각 변인 간의 상관계수, 유의확률,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모든 측정변인은 정상분포성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히 측정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시행한 결과, $\chi^2(98, N=378)=315.178, p=.000$, 이었고, GFI=.901, TLI=.931, CFI=.944, SRMR=.043, RMSEA=.077(90% 신뢰구간 [.067, .086]), 으로 수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별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50에서 .94의 범위로 나타났다. 연구에 사용된 잠재변인과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준 요인부하량은 .30 이상으

표 1. 변인 간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N=378)

	1	2	3	4	M(SD)
1	-				65.64(12.79)
2	.53**	-			31.81(9.38)
3	.66**	.67**	-		31.10(10.39)
4	.33**	.36**	.39**	-	21.09(6.51)

주. 1. 내현적 자기에, 2. 부정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3. 내면화된 수치심, 4. SNS 중독경향성.

** $p < .01$.

표 2.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척도 및 왜도 ($N=378$)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내면적 자기애	2	.40**	1													
	3	.28**	.42**	1												
	4	.60**	.66**	.47**	1											
	5	.54**	.42**	.27**	.60**	1										
	6	.29**	.28**	.19**	.39**	.27**	1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7	.29**	.34**	.34**	.40**	.25**	.58**	1								
	8	.33**	.41**	.20**	.49**	.41**	.66**	.60**	1							
	9	.35**	.45**	.32**	.62**	.43**	.65**	.67**	.77**	1						
내면화된 수치심	10	.49**	.39**	.36**	.65**	.42**	.46**	.41**	.48**	.58**	1					
	11	.47**	.40**	.34**	.61**	.36**	.51**	.48**	.56**	.65**	.74**	1				
	12	.43**	.41**	.33**	.58**	.40**	.51**	.43**	.57**	.65**	.76**	.77**	1			
SNS 중독경향성	13	.42**	.43**	.27**	.58**	.47**	.46**	.34**	.54**	.55**	.65**	.62**	.70**	1		
	14	.19**	.28**	.28**	.32**	.18**	.24**	.24**	.26**	.34**	.37**	.37**	.38**	.24**	1	
	15	.20**	.34**	.20**	.30**	.19**	.27**	.24**	.34**	.32**	.30**	.29**	.33**	.31**	.72**	1
	16	.19**	.27**	.15**	.22**	.16**	.25**	.24**	.33**	.27**	.23**	.24**	.32**	.31**	.60**	.75**
<i>M</i>	11.81	11.53	10.25	13.74	15.17	10.05	9.69	5.38	6.69	7.50	8.10	8.02	7.48	6.02	11.13	3.94
<i>SD</i>	3.61	2.70	2.65	3.60	3.19	3.22	3.05	1.90	2.73	3.18	3.43	2.95	2.16	2.16	3.53	1.51
왜도	-.04	-.17	-.04	-.09	.01	-.13	.04	-.12	.26	.83	.71	.74	.39	.76	.13	.04
첨도	-.39	-.32	-.10	-.40	-.35	-.51	-.37	-.85	-.85	-.12	.06	.22	.03	-.52	-.94	-1.16

주. 1. 목표불안정, 2.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3. 착취/자기중심성, 4. 과민/취약성, 5. 소심/자신감부족, 6. 자기비난, 7. 타인비난, 8. 반추, 9. 과국화, 10. 부적절감, 11. 공허감, 12. 자기처벌, 13. 실수불안, 14. 집착/금단증상, 15. 과잉소통/몰입, 16. 과도한 시간투자.

** $p < .01$.

표 3.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모수 추정치 ($N=378$)

잠재변인	측정변인	<i>B</i>	β	<i>SE</i>	C.R.	<i>p</i>
내면적 자기애	목표불안정	.69	.65	.10	11.18	***
	인정욕구	.55	.69	.08	11.75	***
	착취/자기중심성	.39	.50	.07	8.91	***
	과민/취약성	.61	.94	.11	14.42	***
	소심/자신감부족	1.00	.65	-	-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자기비난	1.00	.74	-	-	-
	타인비난	.88	.72	.07	13.96	***
	반추	.64	.84	.04	16.46	***
내면화된 수치심	과국화	.94	.92	.06	17.85	***
	부적절감	.92	.85	.09	17.80	***
	공허감	.56	.88	.10	17.96	***
	자기처벌	.89	.89	.09	18.71	***
	실수불안	1.00	.77	-	-	-
SNS 중독경향성	집착/금단증상	1.00	.78	-	-	-
	과잉소통/몰입	.51	.93	.11	17.69	***
	과도한 시간투자	.37	.80	.04	16.31	***

*** $p < .001$.

로, 모든 측정변인들은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으므로 구조모형에 투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경로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검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 적합도는, $\chi^2(98, N=378)=315.178, p<.001$, 이었으며, $GFI=.901, TLI=.931, CFI=.944, SRMR=.0431, RMSEA=.077(90\% \text{ 신뢰구간 } [.067, .086])$, 으로 수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검토하였고,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애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이르는 경로, $\beta=.66, p<.001$, 와 내현적 자기애가

내면화된 수치심에 이르는 경로, $\beta=.44, p<.001$,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이르는 경로, $\beta=.47, p<.01$, 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SNS 중독경향성에 이르는 경로, $\beta=.19, p<.05$,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이르는 경로, $\beta=.09, p>.05$, 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SNS 중독경향성에 이르는 경로, $\beta=.20, p>.05$,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모형 설정

모형 비교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 χ^2 의 차이($\Delta\chi^2$) 및 적합도 지수의 크기 등을 검토한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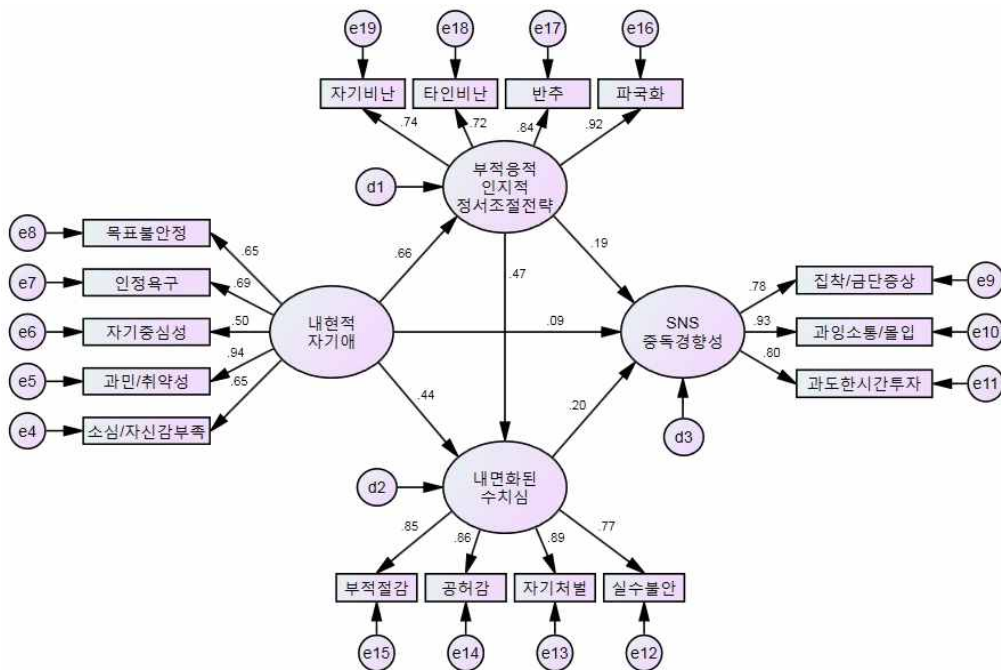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 χ^2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비교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 모형은 내포관계(nested relation)가 성립되므로

χ^2 차이검증($\Delta\chi^2$)을 통해 두 모형을 직접 비교하였다. χ^2 차이검증에서 χ^2 값은 작을수록, 자유도는 클수록 좋은 모형이다. 하지만 χ^2 의 차이 값($\Delta\chi^2$)이 자유도의 차이 값(Δdf)을 충분히 상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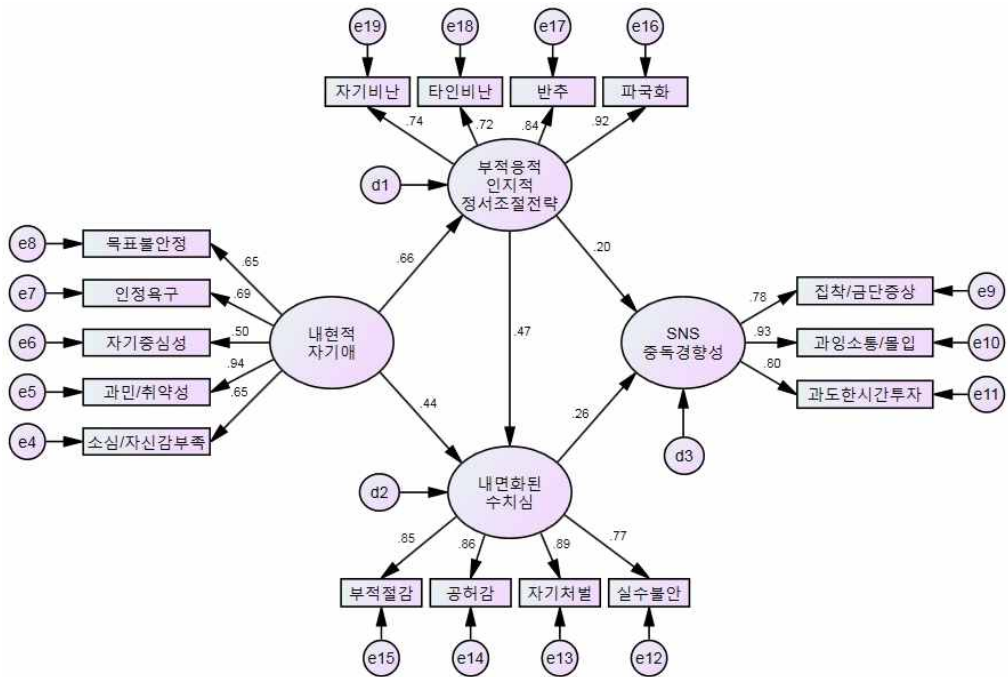


그림 3. 경쟁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N=378)

			<i>B</i>	β	<i>SE</i>	C.R.
내현적 자기애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76	.66	.08	9.68***
내현적 자기애	→	내면화된 수치심	.57	.44	.08	7.41***
내현적 자기애	→	SNS 중독경향성	.07	.09	.07	1.03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내면화된 수치심	.54	.47	.07	8.18***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SNS 중독경향성	.13	.19	.07	2.03*
내면화된 수치심	→	SNS 중독경향성	.12	.20	.07	1.86

* $p < .05$. *** $p < .001$.

표 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 비교

	χ^2	$\Delta\chi^2$	<i>df</i>	<i>p</i>	GFI	TLI	CFI	SRMR	RMSEA (90% 신뢰구간)
연구모형	315.178	1.049	98	.000	.901	.931	.944	.043	.077 [.067, .086]
경쟁모형	316.227		99	.000	.901	.932	.944	.044	.076 [.067, .086]

킬 만하면, 최종모형으로 자유도가 작은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즉, $\Delta df \neq 1$ 일 때, 본 연구에서 χ^2 의 차이 값($\Delta\chi^2$)은 1.049로 경쟁모형이 자유도 차이 값을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의 $\Delta\chi^2$ 값을 나타내었으므로 경쟁모형이 연구모형보다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간접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에서 잠재변인 간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사용하였다. 이는 간접효과와 정확한 표준오차 추정치를 얻는 방법으로, 원자료

표 6. 경로의 직접 및 간접효과 (*N*=378)

			직접효과	간접효과
내현적 자기에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66**	-
내현적 자기에	→	내면화된 수치심	.44**	.31**
내현적 자기에	→	SNS 중독경향성	-	.33**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내면화된 수치심	.47**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SNS 중독경향성	.20*	.12*
내면화된 수치심	→	SNS 중독경향성	.26*	-

주. 값은 표준화된 경로계수.

* $p < .05$. ** $p < .01$.

표 7. 경로의 특정간접효과 (*N*=378)

				<i>B</i>	Lower	Upper	<i>p</i>	
내현적 자기에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내면화된 수치심	.407	.314	.539	**
내현적 자기에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SNS 중독경향성	.107	.012	.217	*
내현적 자기에	→	내면화된 수치심	→	SNS 중독경향성	.094	.022	.167	*
내현적 자기에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내면화된 수치심	.066	.019	.122	*
			→	SNS 중독경향성				*

* $p < .05$. ** $p < .01$.

($N=378$)에서 무선표집 1000번이 계산되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변인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유의수준은 표 6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적합도와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팬텀변수를 사용하여 개별 간접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간접효과, $B=.407, p<.01$, 가 유의하였고,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B=.107, p<.05$, 과 내면화된 수치심, $B=.094, p<.05$, 의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간접효과, $B=.066, p<.05$, 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치료적 접근을 위해 전국의 20, 30대를 대상으로 SNS 중독경향성을 야기하는 심리적 기제와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SNS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면대 면 상호작용하지 않아도 되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자기개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SNS의 특징은 내현적 자기애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고, 이미 기존의 연구들은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밝혀 왔다(이은지, 2015; 조성현, 서경현, 2013). 하지만 내현적 자기애는 평생에 걸쳐 지속되어 온 성격 특성이므로 치료가 상당히 어

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한수정, 2016), 선행연구들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변인을 밝혀 치료적 개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아직 이들 변인 간의 구체적인 과정을 밝힌 연구뿐만 아니라 SNS 중독 자체에 관한 연구조차도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변인과 그 과정을 밝히기 위해 기존의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내현적 자기애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쳐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네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가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자료는 온라인 리서치 회사를 통해 현재 SNS를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20, 30대에게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모델링 등의 통계적 과정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변인 간의 관계 및 SNS 중독경향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이에 따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가설 1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간접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영은 등(2016)과 이경민(2014)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 자체가 SNS 중독을 일으키지는 않으며, 이들 간에서 다른 변인이 크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성격양식의 하나로, 정서적 경험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인지적 오류와 비합리적 사고를 지닌 채 대처하는 경향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며(권석

만, 한수정, 2000; 박세란, 2004; 신현민, 2009; 이승현, 2011에서 재인용), 이를 회피하기 위해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과정이 자동적으로 발생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치료 과정에서 내현적 자기애자의 부적응적 인지적 구조에 대한 수정을 통해 중독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중독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가설 2 ‘내현적 자기애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정적 영향을 미쳐 SNS 중독경향성에 정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이는 이은지(2015)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나 타인을 비난하거나 반추, 과국화 등의 부적절한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SNS 중독경향성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 3 ‘내현적 자기애는 내면화된 수치심에 정적 영향을 미쳐 SNS 중독경향성에 정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이는 이론적으로 수치심이 중독과 관련이 깊으며(Cook, 1991; Potter-Efron, 1989), 수치심을 회피하기 위해 행위중독이 선택될 수 있다는 주장(Baker et al., 2004)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으면 내면화된 수치심을 많이 경험하고, 이에 대한 회피행동으로 SNS 중독경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의 가설 4 ‘내현적 자기애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정적 영향을 미쳐 내면화된 수치심에 정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즉, 내현적 자기애자는 그들이 지니는 불안정한 귀인양식과 인지적 오류로 인해 정서적 경험을 하는 상황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주로 사용하며, 이로

인해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강문선과 이영순(2011)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설 5 ‘내현적 자기애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내면화된 수치심에 순차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쳐 SNS 중독경향성에 정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자가 반복되는 자기애적 좌절과 인지적 오류로 인해 잘못된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게 되어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강문선, 이영순, 2011), 내면화된 수치심은 고통스러운 정서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써 SNS의 중독적 사용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SNS 중독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 중독경향성을 야기하는 데 있어 내현적 자기애 자체보다는 두 변인 사이에서 작용하는 변인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순차적으로 거쳐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자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부적응적이기 때문에 내면화된 수치심을 발생시키며, 고통스러운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SNS라는 가상세계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중독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가 어떠한 심리적 기제와 과정을 거쳐 SNS 중독경향성을 야기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임상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기제에 대해 밝혀 SNS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인터넷 중독과 달리, SNS 중독경향성은 사이버 세계에서 친교 형성 및 유지에 초점을 맞춘 ‘관계중독’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응의 양상이 다르게 발현되므로 인터넷 중독과 구분되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최근 SNS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역사가 길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의 SNS 중독과 관련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변인의 영향과 그 과정을 밝힘으로써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아직 두 변인 사이에서 어떤 변인과 기제가 작용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친 간접효과만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두 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SNS 중독경향성의 치료에 있어 이들 변인에 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힌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같은 변인들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자의 SNS 중독경향성 치료에 있어 중재 전략과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는 평생에 걸쳐 지속되어 온 만연한 성격 특성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어렵다. 하지만 내현적 자기애자가 지니는 귀인양식

과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는 인지 치료와 함께 부적절한 정서에 대한 이해와 표현 및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개입을 통해 이들의 SNS 중독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정서인 수치심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발생하는지 밝힌 데 의의가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중독 외에도 다양한 정신 병리 지표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자가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및 파국화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수치심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들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국의 20, 30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대의 집단에 대한 표집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임상 집단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실제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나 SNS 중독을 겪고 있는 임상 집단에 일반화될 수 있는지는 추후연구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다른 측정방식도 고려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에서 작용하는 변인으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내면화된 수치심만을 살펴보았는데, 추후연구에서는 다른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의 어떠한 특징이 SNS 중독을 유발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 도움이 되는 이론적 바탕을 세움으

로써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문선, 이영순 (2011).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내면화된 수치심과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12(5), 1545-1560.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금창민 (2013).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proneness)'과 정신건강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교현 (2007). 중독, 그 미궁을 헤쳐 나가기.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677-693.
- 김선미, 서경현 (2015).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3), 587-603.
-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정화 (2015). SNS 중독경향성과 인터넷 중독의 온라인 익명성, 자기애, 우울, 불안 및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비교.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류수정 (2014).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회피-분산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선미, 박병기 (2014). 매개효과 연구의 동향분석과 새로운 방향 탐색. 교육심리연구, 28(1), 41-70.
- 박세란 (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오윤경 (2012). SNS 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오하연, 박경 (2012). 사회불안에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에 대한 고찰.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12(2), 77-99.
- 우공선, 강재원 (2011). 이동형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이용 충족, 의존, 그리고 문제적 이용.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8(4), 89-127.
- 이경민 (2014).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을 매개로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상호 (2013).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중독에 관한 정책적 함의 연구: 한국형 SNS 중독지수 (KSAI) 제안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1(1), 255-265.
- 이서정, 현명호 (2008).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887-905.
- 이승현 (2011).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영은, 박현주, 허창구 (2016). 내현적·외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1), 63-80.
- 이은지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인숙, 최혜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 -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정구철, 문중호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146-156.
- 조성현, 서경현 (2013). SNS 중독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내현적 자기애,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39-250.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마이크로블로그 이용실태조사. <https://isis.kisa.or.kr/board/index.jsp?pageId=070200&bbsId=3&itemId=787&pageIndex=4>에서 2016. 10. 26 자료 얻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65914&bcIdx=17132&parentSeq=17132에서 2016, 10, 18 자료 얻음.
- 한수정 (2016).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Baker, T. B., Piper, M. E., McCarthy, D. E., Majeskie, M. R., & Fiore, M. C. (2004). Addiction motivation reformulated: An affective processing model of negative reinforcement. *Psychological Review*, 111(1), 33-51.
- Brecker, S. J. (1990). Applications of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in psychology: Cause for concern?.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60-273.
- Cook, D. R. (1991). Shame, attachment, and addiction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is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3(5), 405-419.
- Cook, D. R.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New York: Multi Health System Inc.
- Gam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Goss, K., Gilbert, P., & Allan, S. (1994). An exploration of shame measures-I: The other as shamer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5), 713-717.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4), 521-525.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Leeming, D., & Boyle, M. (2004). Shame as a social phenomen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concept of dispositional shame.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7(3), 375-396.
- Levin, J. D. (1987). *Treatment of alcoholism and other addictions: A self-psychology approach*. Holland: Jason Aronson.
- Morrison, A. P. (1983). Shame, ideal self, and narcissism. *Contemporary Psychoanalysis*, 19(2), 295-318.
- Potter-Efron, R. T. (1989). Assessment of Co-dependency with Individuals from Alcoholic and Chemically Dependent Families.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6(1), 37-57.
- Schore, A. N. (1994). *Affect Regulation Origin of Self C (The Neurobiology of Emotional Development)*. California: Lea.
- Vaske, J. J. (2008). *Survey research and analysis: Applications in parks, recreation and human dimensions*. Andover: Venture Pub.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 L. VandeCreek & T. L. Jackson (Eds.),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Vol. 17, pp. 19-31).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원고접수일: 2017년 10월 25일

논문심사일: 2017년 11월 8일

게재결정일: 2018년 5월 23일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Focused on the Indirect Effects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Internalized Shame

SeulBin Moon

MinKyu Rhee

Department of Psych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direct effects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internalized shame on the relation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NS) addiction proneness.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378 adults(187 males, 187 females) who used SNSs. The questionnaire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SNS Addiction Proneness Scale, the Covert Narcissism Scale(CNS),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CERQ) and the Internalized Shame Scale(ISS). SPSS 21.0 and AMOS 21.0 were used for data analysis. Data analyses included a reliability analysis, a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 correlation analysis, a measurement model analysis and a structural model analysis.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resul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was used and the results showed a satisfactory fit indices. Also, to identify the indirect effects, the bootstrapping method wa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NS addiction pronenes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overt narcissism,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internalized shame. Seco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internalized shame indirectly affected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separately. Third, the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were indirectly affected by covert narcissism and internalized shame. Fourth, the sequential indirect effects that the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internalized shame ha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were significant.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presented.

Keywords: SNS Addiction Proneness, Covert Narcissism,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ternalized Shame